

완도군, 지속 가능 해조류산업 육성 ‘박차’

우량 종자·신품종 연구 강화 해양바이오 산업 인프라 확충

완도군이 해조류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조류 우량 종자 및 신 품종 개발, 종자 보급 등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과 기능성 해조류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안 김 우량 종자 개발을 위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와 용역을 추진해 4 개 품종을 개발했으며 1종은 품종 출원 중이다.

또한 해조류의 기능성 물질 추출을 통한 해양 바이오산업 기반 마련과 해조류 유용 성분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기능성 해조류인 감태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미국 관계자 등 해외 해조류산업 전문가들이 지난 6월 완도 툿 양식장을 방문해 수확된 툿을 살펴보고 있다(왼쪽). 완도 다시마 양식장 전경. <완도군 제공>



감태는 갈조류로 기능성 물질인 폴리페놀의 추출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 고수온기 전복 대체 먹이뿐 아니라 의약품 기능성 물질의 원료 공급에도 쓰일 전망이다.

감태와 함께 바다고리풀, 뽕부기 등 유망 양식 품종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2년 준공된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보

관 시설’을 통해 연간 6천척 이상의 채묘 보급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는 물레 개수를 확충해 2만척 이상의 채묘를 어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해조류 채묘 틀 생산 시설을 준공해 미역, 다시마, 곱피 등 해조류 종자 틀을 양식 어가에 50만 개 이상 보급하고 있다.

완도군은 해조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조류 블루카본 신규 인증,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 시설 구축, 해상 풍력과 수산업 공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와 전복 추출물의 코로나바이러스 침투 억제 연구’가 특허 출원 중이며, 감태·곱피·청각 등 해조류 성분이 미세먼지 유사 물질에 대한 염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메디시나’에 게재되는 성과도 거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미국 나사에서 조 명하고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해조류 관련 종사자들이 찾아올 정도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라며 “해조류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조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여왕의 과일’ 해남 무화과 본격 수확

수경재배 품질·당도 ↑ …전국 당일배송

해남군의 특화작목인 시설 무화과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 무화과는 외관이 깨끗하고 당도가 높아 노 지 무화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시설 재배를 통해 수확 시기를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확대할 수 있어 보관이 어려운 신선한 무화과를 장기간 공급할 수 있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30농가, 31ha 규모에서 시설 무화과를 재배할 계획이다.

최신 하우스에서 상자 수경재배로 생산된 무화과는 껍질째 먹을 만큼 깨끗하며 높은 당도와 치밀한 조직으로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대부분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으며, 공동 선별을 통해 당도와 무게 등 규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출하하고 있다. 수확된 무화과는 직거래와 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등을 통해 판매되며 잼, 말랭이, 식초, 즙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도 선보이고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 ‘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는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항암 효과와 풍부한 섬유질, 단백질 분해효소가 소화 개선과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무화과는 품질이 뛰



시설하우스에서 상자 수경재배로 생산된 해남 특화작목 무화과. <해남군 제공>

어나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과거 남부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과일이 이제는 당일 배송으로 전국 어디서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합평읍 일대에서 침수된가재도구를 정리하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함평군 제공>

괴물폭우 피해 합평, 민·관·군 복구 ‘총력’

토사·쓰레기 제거·방역 구슬땀

함평군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군과 힘을 모았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군 공무원 200여명과 합평경철서 20명, 합평소방서 40명, 전남경찰청 기동대 115명, 제8332부대 군 장병 37명 등 총 400여 명이 투입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재해복구 지원팀을 파견

했고, 관내 건설업체 금도건설은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지원해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오전 7시부터 피해 현장에서 토사 제거, 쓰레기 정리, 침수 주택 복구, 방역 등 전방위적인 복구 활동을 벌였다.

특히 전남경찰청 기동대는 읍내 상가 일대에서 장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합평경찰서는 중앙길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섰다.

제8332부대는 장갑과 생수, 수건 등 물품을 지원하고 천지전통시장 상가와 민가에서 가

재 정리를 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명씩 2개 조로 나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자원봉사자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로타리클럽 등 민간단체도 합평읍 전역에서 복구와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폭우 피해 복구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김연수 기자

야 육상 투척 강자들, 목포서 ‘금메달 경쟁’

21-22일 종합경기장서 선수권대회

8개 종목…25개국 500여명 참가

아시아 정상급 투척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21-22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과 대한육상

연맹,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세계육상연맹(WA) 세계랭킹 ‘C’ 등급 대회로 공인받았다.

대회 기간 ‘제2회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도 함께 열리며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등 남녀 각 4종목 총 8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총 25개국 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시는 체계적인 대회 운영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선수단과 관계자 방면에 대비해 숙박, 안전, 위생 등 전반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목포시 스포츠산업과장은 “국제육상연맹 공인 대회인 만큼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목포가 대한민국 대표 육상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생태공원·보은산·가우도

강진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3개 구역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 전방위적인 준비를 해왔다.

강진만 생태공원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보은산 일대에서는 산악 물류 실증, 가우도에서는 섬 지역 물류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옛 성화대 부지에는 드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드론 산업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강진은 생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며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조피불락 14만 마리 긴급 방류

고수온 대응·수산자원 증대

신안군은 6일 “전날 압해읍 해역에서 양식 중인 조피불락 14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방류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내 양식어가의 수온 조사를 통해 압해읍과 안좌면 등 4어가로부터 총 20만 마리 신청을 받았다.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압해해역에 우선 방류하고, 안좌해역은 추후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된 조피불락은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으로 전장 6~11cm 크기의 건강한 개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쳤으며, 신안군은 어업인 홍보를 통해 방류해역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임자도-효지도와 흑산면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신안군은 조기 출하 등



단계별 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현장 지도와 문자 발송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고수온 주의보 상황에 따라 긴급 방류 물량과 품종을 확대하고, 대응 지원 사업도 조기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영암 평생학습도시 명맥 2028년까지 잇는다

교육부 재지정 평가 통과

영암군은 6일 “교육부의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2028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각종 공모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2020년 도입돼 4년 이상 지위를 유지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영암군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2022년 1차 평가에 이어 올해 2차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 3년간의 추진 체계, 사업 운영과 성과 등 3개 영역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학습자 요구 반영 맞춤형 강좌 운영 ▲연령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군민의 학습 접근성과 관리를 보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과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